

성인여성의 사장의복 현황과 의류폐기 원인 조사

강 여 선

덕성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

요 약

본 연구는 성인여성의 의복 보유량, 사장의복 처리현황과 폐기원인을 조사하여 친환경소비 확산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마련에 목적이 있다. 2012년 11월~2013년 1월까지 총 234부를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티셔츠류, 바지, 팬티, 양말류가 7벌 이상으로 많고 중의류는 5~6벌, 외의류는 3~4벌로 적었다. 20대와 학생은 캐주얼웨어, 30대 이상은 정장, 50대는 패션소품이 많았고 충동구매율이 20% 이상인 여성이 의복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 활용량은 보유량보다 대개 1~2벌 적었으나 보유량이 많은 복종은 약 3벌 적어 사장의복량도 같이 늘었다. 폐기량은 보유량이 많은 복종이 2~2.5벌, 적은 복종이 1벌, 나머지는 1.5~2벌 정도였으며 40대와 직장인의 폐기가 많았다. 안 입는 헌옷은 헌옷수거함에, 새 옷은 다양한 방법으로 70%정도 재활용했으나 보관하는 사장의복도 10~30%로 높았고 특히 학생과 의류산업의 환경오염을 덜 인식하는 집단의 사장의복율이 높았다. 주로 아깝거나 재유행을 바라며 보관했지만 처리방법을 몰라서 보관하는 경우도 10%이상이었으며 특히 20~30대의 비율이 높았으므로 재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헌옷 재활용에 대해 68.1%가 긍정적이었으나 재활용실천 의사가 보통보다 낮았고 재활용경험은 매우 미흡했으며 최근 폐기량도 약간 증가한 편이었으므로 재활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재활용실천이나 폐기량 감소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활용실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폐기한 의복은 5~8년 사용했고 대체로 품질이나 불편함보다는 디자인과 취향변화의 이유로 폐기하였으나 복종과 연령에 따라 폐기원인이 달랐다. 또한 폐기한 옷의 충동구입비율은 일반적 의복구입의 충동구입비율보다 훨씬 높았으므로 충동적으로 구입한 옷을 쉽게 버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충동구입이 폐기량 증가와 환경오염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일깨울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제어: 사장의복, 재활용, 폐기원인, 여성복, 의복보유량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현대 의류산업은 3가지 측면에서 환경오염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인조섬유와 화학섬유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현재 의류 산업에서 합성섬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에 달하며¹⁾ 지난 15년간 전 세계적으로 천연섬유나 나일론, 아크릴의 수요는 유사하거나 약간 증가한 반면 폴리에스터의 수요는 약 5배 증가하였다.²⁾ 특히, 스포츠웨어와 캐주얼의류가 연간 4.5%, 3.4%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에³⁾ 따라 방한, 투습방수 및 활동성 향상을 위한 고기능성 합성섬유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로 의류제품의 글로벌 생산 확대에 의한 화석연료사용이 증가하였다. 나이키(NIKE), 갭(GAP), 베네통(BENETTON) 등 많은 다국적 의류 업체들과 에이치 & 엠(H&M), 자라(ZARA), 유니클로(UNIQLO) 등 SPA 브랜드들은 저가생산을 목적으로 원단생산, 가공, 디자인, 제품생산, 판매를 각기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섬유, 의류의 수출량은 전세계 수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되었다.⁴⁾ 셋째는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의 유행으로 인한 의류제품의 생명주기 단축과 폐기량 증가이다. SPA 브랜드의 성장을 바탕으로 최신 유행상품을 싼 값에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옷의 보관가치가 떨어지고 쉽게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식되었다. 의류를 한 계절용 소비재, 나아가 일회용 소비재로 여기게 됨에 따라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실제로 SPA 브랜드의 성장과 의류수거함 배출량이 동반상승하고 있으며 의류 수거업체에 따르면 한 달 평균 300세대 당 약 300kg에 육박하는 의류폐기가 발생하고⁵⁾ 이로 인해 의류폐기량은 2008년 5만4677t에서 2010년 6만 4057t으로 17% 증가하였다.⁶⁾ 영국의 경우도, 1인당 연간 약 35kg

의 의류섬유제품을 구입하고 그 중 1/8만 재활용할 뿐 나머지는 버리고 있다.⁷⁾ 이와 더불어 패션 브랜드들도 브랜드가치 유지를 위해 판매되지 않은 3년차 제품들을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⁸⁾ 의류폐기로 인한 화석연료사용 증가와 환경오염 증가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패션업계에서도 친환경소재 및 친환경가공 등의 친환경제품개발뿐 아니라 '친환경소비', 즉 의류제품의 생명연장을 통한 의류소비와 폐기 감소에 관심을 갖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친환경소비의 방법으로 재활용(recycle)이 가장 널리 강조되고 있으며 재활용 방법은 다른 제품으로 환원시키는 재생(reclamation)과 재사용(reuse) 등이 있다. 재생은 주로 기업단위로 이루어지는 편이며 현재 나이키, 리바이스, 휴비스, 웅진케미컬 등의 기업에서 폐섬유나 폐페트병을 활용하여 기능성 섬유를 재생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국내 폐페트병 재활용 회수비율이 84%로 높은 반면 의류 및 가정용/산업용 섬유제품의 재활용 회수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며 특히 의류는 다양한 섬유들의 혼방제품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다.⁹⁾ 재사용은 친환경제품개발과 달리 주로 소비자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친환경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가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의류제품 폐기의 심각성 및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부족과 중고의류에 대한 편견 및 긍정적 환경의식에 반하는 부정적 친환경적 패션 태도¹⁰⁾로 인해 소비자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레코드(RE:CODE), 리블랭크(REBLANK) 등 의류 생명연장을 위한 업사이클(upcycle) 브랜드들이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중고의류 거래도 증가하는¹¹⁾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환경소비를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류 재활용의 필요성과 의류폐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최근 인식현황을 바

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의류 폐기 및 재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한 교도 의정서가 발의될 무렵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류폐기현황 및 폐기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중 의류소비자들의 환경의식과 의복처분 및 재활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환경의식과 재활용행동에 관한 연구(김시월 외 4인, 1998¹²⁾; 노영래, 김시월, 2002¹³⁾; 석혜정, 김인숙, 2005¹⁴⁾), 의복처분행동에 관한 연구(장경혜, 박재옥, 1997¹⁵⁾; 정유정, 박옥련, 2006¹⁶⁾) 및 의복폐기에 대한 연구(김병미, 이재명, 1997¹⁷⁾; 유연실, 1996¹⁸⁾)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친환경제품개발에 관한 연구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친환경소비나 의류처분행동에 관한 연구는 주춤한 상황이다. 최근 친환경소비의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속가능한 패션사례 연구나¹⁹⁾ 친환경패션 연구²⁰⁾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의류폐기 현황이나 원인에 대한 최근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자원고갈과 환경오염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소비의 중요성과 의류폐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친환경소비확산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장의류의 현황과악과 더불어 의류재활용과 폐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최근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환경에 대한 의식변화가 실제 재활용증가나 폐기감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의류관리 및 폐기의 주 담당자인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의류 보유 및 사용 현황, 사장의복의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및 폐기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친환경소비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성인여성의 의류보유량, 활용량, 및 폐기량을 조사한다. 또한 연령과 직업 뿐 아니라 의복의 충동구매를 집단에 따른 의복보유량 차이를 비교한다.
- 연구문제 2: 성인여성이 사장의복을 처리하는 현황 및 재활용 현황을 조사한다. 더불어 연령, 직업 및 의류산업의 상대적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집단별 특성을 파악한다.
- 연구문제 3: 성인여성의 의복 폐기현황과 원인을 조사 분석한다.

2. 연구 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의류 관리와 폐기를 주로 담당하는 20~59세 성인여성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한 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웹사이트(ksdcdb.kr)에서 개별적 응답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연령별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동인구가 많은 쇼핑몰 및 지하철역에서 추가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240부를 수거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6부를 제외한 234부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집단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령과 직업을 조사하였다.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로 구분하였고 직업은 학생, 직장인, 주부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직종 간 비교는 본 연구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학력은 많은 연구에서 집단구분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나 대학진학률이 1987년 35.9%에서²¹⁾ 2012년 71.3%로²²⁾ 증가함에 따라 연령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본 연구지역이 수도권에 한정됨으로써 응답자간 학력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범위에 포함하

지 않았다. 또한 충동적 의복구입비율과 의류산업의 상대적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하여 집단구분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성인여성의 집단별 의류 보유량과 활용량 및 폐기량 비교

의복 보유량과 활용량 및 폐기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복 수, 이번 시즌에 자주 착용한 의복 수 및 지난 6개월간 폐기한 의복 수를 복종별로 조사하였다. 2012년 10월에 실시한 예비조사결과에서 보유량과 활용량을 정확한 숫자를 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예비조사결과의 95% 범위까지 2벌씩 묶고 그 이상을 따로 구분하여 선택형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폐기량은 1벌씩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복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종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기 위해 반팔/민소매 티셔츠, 긴팔 티셔츠, 후드/텐트맨, 셔츠/블라우스, 조끼, 스웨터/카디건, 점퍼, 파카/캐주얼코트, 버버리/정장코트, 재킷, 원피스, 치마, 바지, 브래지어, 반팔/민소매 내의, 팬티, 스카프/목도리, 운동화, 구두, 양말/스타킹, 가방/핸드백으로 구분하였다.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령, 직업 및 충동적 의복구입비율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의복구입의 계획성인 필요에 따른 구입, 계획적 구입, 충동적 구입으로 구분되므로²³⁾ 충동적 구입에 따라 의복보유량이 달라지는지 조사하기 위해 충동적 구입비율을 조사하였고 응답자들의 백분위를 활용해 3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사장의복의 처리현황 및 재활용 현황 조사

사장의복은 활용하지도 폐기하지도 않은 상태의 의복을 일컫는다. 사장의복은 본인과 타인의 재사용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시간이 경과할수

록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장의복의 처리와 재활용 현황을 조사하여 사장의복 감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장의복의 처리현황은 처리방법과 그대로 보관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재활용 현황은 타인의 옷 재활용과 본인의 옷 재활용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타인의 옷 재활용은 착용의사와 활용경험 및 타인에게 많이 준 의복종류를 조사하였고 본인의 옷 재활용은 수선으로 재활용하고 싶은 옷의 양과 실제 수선으로 재활용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설문문항은 선행연구(곽인숙 외 3인, 1998²⁴⁾; 김병미, 이재명, 1997²⁵⁾; 신은주, 1989²⁶⁾)의 도구를 참조하였다. 사장의복의 처리방법은 헌옷과 새옷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문항은 수선 후 입음, 타인에게 줌, 헌옷 수거함에 넣음, 사회기관에 보냄, 물물교환이나 중고로 판매, 쓰레기봉투에 버림, 그대로 보관으로 하였다. 그대로 보관하는 이유는 적당한 처리방법을 몰라서, 아까워서, 후에 폐품으로 활용하려고, 후에 적당한 사람 주려고, 유행이 돌아오면 다시 입으려고, 복지시설에 위탁하려고 중 선택하게 하였다. 타인에게 가장 많이 준 옷의 종류는 복종별 현황과악보다는 착용목적과 의복치수로 인한 착용제한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장상의와 하의, 캐주얼상의와 하의, 스포웨어, 교복/체육복, 스카프/모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헌옷 재활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헌옷 수선경험과 수선해서 다시 입고 싶은 헌옷의 양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타인의 헌 옷을 재활용할 의사와 재활용 경험을 조사하였으며 재활용 의사는 경제적 도움이 되므로 입음,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입은, 남이 입던 옷은 입지 않음, 받아두었다가 타인에게 줌으로 질문하였고 재활용경험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연령과 직업에 따른 집단별 차이와 더불어 의류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집단에 따른 사장의복 처리현황 차이를 분석하였다. 의류산업의 상

대적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조사는 강여선의 연구를²⁷⁾ 참조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집단구분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3) 의류 폐기 현황 및 원인조사

실제 폐기한 의복의 특성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의복 폐기량 변화와 가장 최근에 폐기한 의복의 특성과 원인을 조사하였다. 의복폐기량 변화는 과거 4~5년전에 비해 최근 2~3년간의 의복폐기량 변화를 조사하였고 폐기 의복의 특징은 의복종류, 착용기간, 구입가격, 구입의 계획성, 착용 당시의 만족도, 폐기방법을 조사하였으며 폐기 원인은 유연실의(1996)²⁸⁾ 조사도구를 참조하여 품질, 디자인과 개인취향, 관리편의 및 체형변화가 의복폐기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최근 의복폐기량 변화, 착용당시의 만족도, 폐기원인은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폐기의복의 종류는 유연실의 5유형 중 원피스와 투피스 정장을 정장 슈트(suit)로 명명하였고 티셔츠, 셔츠, 블라우스가 한 문항으로 묶여 있던 것을 티셔츠 1문항, 셔츠/블라우스 1문항으로 분리하여 총 6종류로 구분하였다.

의복 폐기 원인은 품질관련 5문항, 착용자의 체형변화 1문항, 디자인 및 개인 취향변화관련 12문항, 관리편의성관련 3문항으로 총 21문항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품질관련 문항은 옷의 질이 나쁨, 색이 바래고 보풀이 발생함, 부속이 고장 남, 오래 입어 옷의 형태가 변함, 세탁 후 옷의 치수가 변함이었고 디자인 및 개인 취향변화관련 문항은 다른 옷과 조화하기 힘들, 유행이 지남, 디자인이 안 어울림, 디자인이 싫음, 내 취향이 변함, 많이 입어 싫증남, 입으면 마음 불편함, 나이나 신분에 안 맞음, 디자인이 싫증남, 입을 기회가 적음, 타인 반응이 나쁨, 비슷한 새 옷이 있음이었으며 관리 편의성관련 문항은 세탁 관리가 어려움, 착용 시 활동이 불편함, 너무 두껍고 무거움이었다.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빈도와 분포 등 기초통계 이외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Pearson 카이제곱과 ANOVA F-test 및 Duncan t-test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연령과 직업의 집단 간 빈도가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집단을 100%로 환산한 '집단 내 분포비율'을 활용해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성인여성의 집단별 분포특성

성인여성의 연령분포는<표 1> 20대 38.0%, 30

<표 1>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직업 분포

구분 통계량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직장인	학생	주부	합계
빈도(%)	89(38.0)	66(28.2)	49(20.9)	30(12.8)	92(39.3)	89(38.0)	53(22.6)	234(100)

<표 2> 총동적 구입비율 분포 및 집단별 분포

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백분위수(%)				통계량 집단	범위	빈도	표 %
					25.0	33.3	66.6	75.0				
총동적 구입비율	27.9	18.8	0.0	90.0	10.0	20.0	30.0	40.0	1	0.0~19.9	75	32.1
									2	20.0~29.9	82	35.0
									3	30.0~90.0	77	32.9
									전체	0.0~90.0	234	100.0

<표 3> 의류산업의 상대적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분포

(단위:N(%))

문항	집단	매우 적음	약간 적음	보통	약간 많음	매우 많음	전체	평균
의류산업의 상대적 환경오염도		12(5.1)	55(23.5)	101(43.2)	59(25.2)	7(3.0)	234(100)	3.0

<표 4> 의복 복종별 보유량 분포

복종	구분	없음		1~2벌		3~4벌		5~6벌		7~8벌		9~10벌		11~15벌		16벌이상		전체 (100%)	평균
		N	%	N	%	N	%	N	%	N	%	N	%	N	%	N	%		
반팔/민소매티셔츠 긴팔티셔츠 후드/맨투맨 셔츠/블라우스 조끼 스웨터/카디건 점퍼 파카/캐주얼코트 버버리/정장코트 재킷 원피스 치마 바지	1	0.4	6	2.6	12	5.2	47	20.3	78	33.6	27	11.6	23	9.9	38	16.4	232	9.0	
	-	-	6	2.6	41	17.9	67	29.3	59	25.8	24	10.5	13	5.7	19	8.3	229	7.3	
	7	3.1	48	21.0	91	39.7	49	21.4	16	7.0	15	6.6	-	-	3	1.3	229	4.2	
	2	0.9	18	7.9	69	30.1	79	34.5	32	14.0	13	5.7	10	4.4	6	2.6	229	5.7	
	38	16.5	92	40.0	70	30.4	24	10.4	4	1.7	-	-	2	0.9	-	-	230	2.5	
	1	0.4	16	7.0	81	35.4	60	26.2	40	17.5	16	7.0	11	4.8	4	1.7	229	5.7	
	6	2.6	38	16.6	103	45.0	51	22.3	16	7.0	5	2.2	8	3.5	2	0.9	229	4.4	
	8	3.5	86	37.6	86	37.6	31	13.5	12	5.2	6	2.6	-	-	-	-	229	3.3	
	16	7.0	88	38.4	88	38.4	24	10.5	12	5.2	1	0.4	-	-	-	-	229	2.9	
	5	2.2	24	10.5	50	21.8	65	28.4	51	22.3	15	6.6	15	6.6	4	1.7	229	5.9	
	20	8.7	35	15.3	42	18.3	49	21.4	33	14.4	25	10.9	18	7.9	7	3.1	229	5.7	
	17	7.4	30	13.1	42	18.3	56	24.5	32	14.0	27	11.8	17	7.4	8	3.5	229	5.9	
4	1.7	4	1.7	23	10.0	56	24.5	50	21.8	36	15.7	35	15.3	21	9.2	229	8.4		
브래지어 상의내의 팬티 스카프/목도리 운동화 구두 양말스타킹 가방/핸드백	9	3.9	13	5.7	51	22.3	70	30.6	52	22.7	23	10.0	5	2.2	6	2.6	229	5.9	
	7	3.1	17	7.4	69	30.1	76	33.2	39	17.0	14	6.1	4	1.7	3	1.3	229	5.3	
	-	-	2	0.9	14	6.0	68	29.1	65	27.8	33	14.1	30	12.8	22	9.4	229	8.5	
	9	3.9	22	9.6	58	25.3	66	28.8	47	20.5	16	7.0	6	2.6	5	2.2	229	5.5	
	1	0.4	62	27.1	103	45.0	40	17.5	11	4.8	8	3.5	3	1.3	1	0.4	229	3.9	
	6	2.6	29	12.7	72	31.4	47	20.5	41	17.9	16	7.0	12	5.2	6	2.6	229	5.5	
	1	0.4	2	0.9	18	7.9	47	20.5	68	29.7	7	3.1	18	7.9	68	29.7	229	9.9	
	2	0.9	15	6.6	54	23.6	67	29.3	57	24.9	15	6.6	9	3.9	10	4.4	229	6.3	

*음영은 분포율 10%이상을 나타냄

대 28.2%, 40대 20.9%, 50대 12.8%였고 직업은 직장인 39.3%, 학생 38.0%, 주부 22.6%였다. 성인여성의 충동적 의복구입비율의 특징은 <표 2>와 같이 평균 27.9%, 최소 0%, 최대 90%였고 전체 응답자의 75%는 충동적 구입비율이 40.0%이하였다. 백분위에 따라 3집단으로 구분하였으나 백분위 33.3%의 동점자가 많아 1집단은 33.3% 미만, 2집

단은 33.3% 이상~66.6% 미만, 3집단은 66.6%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집단별 분포는 1집단 75명(32.1%), 2집단 82명(35%), 3집단 77명(32.9%)이었다. 의류산업의 상대적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은 <표 3> 평균 3.0으로 보통정도로 인식하였다. 매우 적음 5.1%(12명), 약간 적음 23.5%(55명), 보통 43.2%(101명), 약간 많음 25.2%(59명), 매우 많음

3.0%(7명)이었다.

2. 성인여성의 집단별 의류 보유량과 활용량 및 폐기량 비교

1) 의류 보유량과 활용량 및 폐기량

성인여성의 복종별 보유량을 조사한 결과<표 4>, 겹옷 중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복종은 반팔/민소매 티셔츠로 평균 9벌 가지고 있었고 다음은 바지(8.4벌), 긴팔 티셔츠(7벌) 순이었으며 셔츠/블라우스, 스웨터/카디건, 원피스, 치마, 재킷은 5~6벌이었다.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복종은 조끼 2.5벌, 버버리/정장코트(2.9벌), 파카/캐주얼코트(3.3벌), 후드/맨투맨(4.2벌), 점퍼(4.4벌) 등 주로 외의

류의 보유량이 적었다. 속옷은 팬티가 8.5벌, 브래지어가 5.9벌, 상의내의가 5.3벌이었다. 신발을 비롯한 패션소품은 양말/스타킹이 가장 많아 9.9벌이었고 다음으로 가방/핸드백이 6.3개, 스카프/목도리 5.5개였고 구두가 5.5개로 적었다.

이번 시즌에 자주 착용한 의복 수를 조사한 결과<표 5> 겹옷은 반팔/민소매 티셔츠가 5.5벌, 바지가 5.4벌로 많은 편이었고 속옷은 팬티(6.8벌)가 패션소품은 양말/스타킹(7.2개) 가장 많았다. 보유량이 중간이었던 재킷, 셔츠/블라우스, 스웨터/카디건, 원피스, 치마 등의 겹옷과 스카프/목도리, 구두, 가방/핸드백은 3~4벌을 자주 착용하는 편이었고 보유량이 적었던 점퍼, 파카/캐주얼코트, 버버

<표 5> 의복 복종별 지난 시즌동안 자주 착용한 의복 수

복종	구분	없음		1~2벌		3~4벌		5~6벌		7~8벌		9~10벌		11벌이상		전체 (100%)	평균	활용율+
		N	%	N	%	N	%	N	%	N	%	N	%	N	%			
반팔/민소매티셔츠 긴팔티셔츠 후드/맨투맨 셔츠/블라우스 조끼 스웨터/카디건 점퍼 파카/캐주얼코트 버버리/정장코트 재킷 원피스 치마 바지	2	0.9	23	9.9	84	36.2	52	22.4	27	11.6	27	11.6	17	7.3	232	5.5	64.7	
	2	0.9	45	19.6	101	43.9	39	17.0	20	8.7	17	7.4	6	2.6	230	4.4	63.9	
	18	7.8	106	46.1	74	32.2	22	9.6	5	2.2	2	0.9	3	1.3	230	2.7	78.5	
	11	4.8	84	36.5	91	39.6	22	9.6	9	3.9	10	4.3	3	1.3	230	3.3	63.5	
	66	28.7	115	50.0	35	15.2	12	5.2	1	0.4	1	0.4	-	-	230	1.6	87.0	
	3	1.3	75	32.6	92	40.0	36	15.7	10	4.3	12	5.2	2	0.9	230	3.7	69.0	
	13	5.7	110	47.8	79	34.3	20	8.7	3	1.3	3	1.3	2	0.9	230	2.7	71.4	
	20	8.7	142	61.7	50	21.7	15	6.5	3	1.3	-	-	-	-	230	2.1	77.9	
	27	11.7	131	57.0	60	26.1	9	3.9	3	1.3	-	-	-	-	230	2.1	82.7	
	11	4.8	63	27.4	72	31.3	47	20.4	25	10.9	7	3.0	5	2.2	230	4.0	73.2	
	33	14.3	57	24.8	69	30.0	45	19.6	14	6.1	8	3.5	4	1.7	230	3.5	72.4	
	37	16.1	57	24.8	64	27.8	44	19.1	17	7.4	8	3.5	3	1.3	230	3.4	67.8	
	7	3.0	18	7.8	71	30.9	66	28.7	32	13.9	21	9.1	15	6.5	230	5.4	71.2	
브래지어 상의내의 팬티	11	4.8	23	10.0	79	34.5	71	31.0	24	10.5	15	6.6	6	2.6	229	4.8	86.4	
	12	5.2	48	20.9	70	30.4	61	26.5	26	11.3	8	3.5	5	2.2	230	4.3	86.6	
	4	1.7	7	3.0	44	19.0	65	28.0	44	19.0	30	12.9	38	16.4	230	6.8	84.7	
스카프/목도리 운동화 구두 양말스타킹 가방핸드백	16	7.0	89	38.7	72	31.3	34	14.8	13	5.7	3	1.3	3	1.3	230	3.2	65.7	
	4	1.7	120	52.2	82	35.7	19	8.3	1	0.4	4	1.7	-	-	230	2.7	78.3	
	15	6.5	80	34.8	78	33.9	28	12.2	17	7.4	8	3.5	4	1.7	230	3.5	76.0	
	2	0.9	9	3.9	62	27.0	42	18.3	30	13.0	9	3.9	76	33.0	230	7.2	77.0	
	3	1.3	55	23.9	104	45.2	46	20.0	13	5.7	7	3.0	2	0.9	230	3.9	70.2	

*음영은 분포율 10%이상을 나타냄, 활용율은 (자주 착용하는 의복 수)/보유량*100으로 계산하였음

<표 6> 의복 복종별 지난 시즌 동안 폐기한 의복 수

복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전체 (100%)	평균
		N	%	N	%	N	%	N	%	N	%	N	%		
반팔/민소매티셔츠		38	16.4	43	18.5	30	12.9	43	18.5	39	16.8	39	16.8	232	2.5
긴팔티셔츠		52	22.6	50	21.7	43	18.7	38	16.5	31	13.5	16	7.0	230	2.0
후드/맨투맨		79	34.3	91	39.6	27	11.7	20	8.7	5	2.2	8	3.5	230	1.2
셔츠/블라우스		72	31.4	85	37.1	29	12.7	29	12.7	6	2.6	8	3.5	229	1.3
조끼		98	42.8	106	46.3	15	6.6	6	2.6	3	1.3	1	0.4	229	0.7
스웨터/카디건		78	34.1	73	31.9	43	18.8	21	9.2	10	4.4	4	1.7	229	1.2
점퍼		84	36.7	83	36.2	33	14.4	17	7.4	11	4.8	1	0.4	229	1.1
과카/캐주얼코트		91	39.7	93	40.6	28	12.2	12	5.2	5	2.2	-	-	229	0.9
버버리/정장코트		94	41.0	103	45.0	18	7.9	13	5.7	1	0.4	-	-	229	0.8
재킷		46	19.7	52	22.3	79	33.9	27	11.6	14	6.0	15	6.4	233	1.8
원피스		64	27.6	38	16.4	94	40.5	19	8.2	9	3.9	8	3.4	232	1.5
치마		53	22.7	43	18.5	95	40.8	18	7.7	17	7.3	7	3.0	233	1.7
바지		48	20.7	38	16.4	67	28.9	30	12.9	32	13.8	17	7.3	232	2.0
브래지어		71	31.0	59	25.8	44	19.2	33	14.4	18	7.9	4	1.7	229	1.5
상의내의		83	36.2	57	24.9	37	16.2	27	11.8	22	9.6	3	1.3	229	1.4
팬티		55	23.9	45	19.6	36	15.7	40	17.4	37	16.1	17	7.4	230	2.0
스카프/목도리		95	41.5	95	41.5	19	8.3	14	6.1	5	2.2	1	0.4	229	0.9
운동화		78	34.1	99	43.2	31	13.5	11	4.8	6	2.6	4	1.7	229	1.0
구두		80	34.9	66	28.8	40	17.5	23	10.0	18	7.9	2	0.9	229	1.3
양말/스타킹		40	17.5	40	17.5	30	13.1	39	17.0	34	14.8	46	20.1	229	2.5
가방/핸드백		84	36.7	90	39.3	31	13.5	11	4.8	9	3.9	4	1.7	229	1.1

*음영은 분포율 10%이상을 나타냄

리/정장코트는 활용량도 적어 3벌 미만이었다. 그 외 브래지어와 상의내의는 4~5벌을 자주 착용하는 편이었다. 의복 활용량은 보유량보다 대체로 1~2벌 적은 편이었으나 보유량이 많았던 반팔/민소매 티셔츠, 바지, 긴팔 티셔츠의 활용량은 보유량보다 약 3벌 적어 차이가 컸다. 이는 보유량이 많으면 활용량과 더불어 착용하지 않는 사장의복양도 많아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속옷인 브래지어, 상의내의, 팬티는 보유량과 활용량이 모두 많고 사장의복양이 1벌 내외로 나타나 겉옷보다 차이가 적었다.

지난 6개월간 폐기한 의복 수는<표 6> 보유량과 활용량이 많았던 반팔/민소매 티셔츠, 긴팔 티

셔츠, 바지, 팬티, 양말/스타킹의 폐기량이 비교적 많아 2~2.5벌이었고 중간 정도의 보유량과 활용량을 보인 재킷, 원피스, 치마 등 정장류의 폐기량은 1.5~2벌이었으며 다른 복종들은 1벌 내외였다. 복종별 폐기량 분포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폐기량이 많았던 복종들은 0~5벌까지 분포가 다양하였으나 폐기량이 중간정도였던 재킷, 원피스, 치마는 2벌 폐기가 가장 많았고 폐기량이 적었던 복종들은 약 70%가 0~1벌 폐기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

2) 집단별 의복 보유량과 활용량 및 폐기량

집단에 따른 복종별 보유량, 활용량, 폐기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의

복보유량은 대체로 연령, 직업, 충동구매율에 따라 유의적으로 달랐으나 셔츠/블라우스, 치마, 점퍼, 상의내의는 연령이나 직업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양말/스타킹, 스카프/목도리, 조끼, 버버리/정장코트, 재킷은 충동구매율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20대는 반팔/민소매 티셔츠, 후드/맨투맨, 운동화 등 캐주얼웨어가 다른 연령보다 많았고 30~50대는 20대보다 조끼, 버버리/정장코트, 재킷 등 정장이 더 많았으며 바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편이었다. 더불어 50대는 스카프/목도리, 구두, 가방/핸드백 등 패션소품이 많았다. 학생은 20대와 마찬가지로 캐주얼웨어가 많았고 직장인과 주부는 조끼, 파카/캐주얼코트, 버버리/정장코트 등의 코트류와 스카프/목도리가 학생보다 더 많았고 직장인은 재킷과 바지가 다른 집단보다 유의적으로 많았다. 또한 충동구매율 집단 간 비교에서는 충동구매율이 높은 집단일수록 보유량이 많은 편이었고 특히 집단 1과 2의 차이보다 집단 2와 집단 3 간의 차이가 유의적으로 뚜렷하였다. 따라서 충동구매율 20% 이상인 성인여성이 더 많은 의복을 보유하는 편이라 하겠다. 다만 가격이 부담스러워 충동구매로 구입하기 힘든 버버리/정장코트와 재킷, 반대로 가격이 저렴한 양말/스타킹, 스카프/목도리는 충동구매율에 따른 보유량 차이가 없었다.

자주 착용한 의복 수, 즉 의복 활용량의 집단 간 비교결과(표 8), 대체로 보유량과 같은 경향을 보여 보유량이 많은 복종들의 활용량도 많은 편이었다. 20대와 학생은 반팔/민소매 티셔츠, 후드/맨투맨, 운동화 등 캐주얼웨어의 활용량이 많았고 30대 이상은 20대보다 조끼, 재킷, 버버리/정장코트 등 정장의 활용량이 많았으며 50대는 파카/캐주얼코트와 스카프/목도리, 구두의 활용량이 많았다. 직장인과 주부는 조끼, 바지, 스카프/목도리, 구두를 학생보다 많이 활용했고 특히 직장인은 셔츠/블라우스, 재킷의 활용량이 다른 집단보다 뚜렷이 많았다. 보유량에서 집단 간 유의차가 없었던 복

종들은 활용량도 유의차가 없었다.

집단 간 의복 폐기량을 비교하면(표 8) 양말/스타킹을 제외한 모든 복종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차를 보여 30대와 40대가 20대나 50대보다 많았고 양말/스타킹과 후드/맨투맨을 제외한 복종에서 직업에 따라 유의차를 보여 직장인이 가장 많았고 학생이 가장 적었다. 거의 모든 복종에서 40대의 폐기량이 가장 많은 편이었으며 특히 재킷과 가방/핸드백의 폐기량은 집단 간 차이가 더욱 뚜렷하여 40대, 30대, 50대, 20대 순으로 달랐다. 또한, 주부의 폐기량은 대체로 직장인과 유사하거나 약간 적은 편이었으나 바지의 폐기량은 직장인, 주부, 학생 순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3. 사장의복의 처리현황 및 재활용 현황

1) 사장의복의 처리현황

안 입는 옷, 즉 사장의복의 처리현황은 처리방법, 그대로 보관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처리방법은 새 옷과 헌 옷이 다른 경향을 보여<표 9> 헌 옷은 헌옷수거함에 넣는 경우가 69.7%로 매우 많고 타인에게 주는 경우나 쓰레기봉투에 처리하는 경우는 10%미만으로 적었으나 새 옷은 타인에게 주는 경우가 37.6%로 가장 많고 그대로 보관 27.4%, 헌옷수거함 18.8%, 수선 11.5%로 비교적 다양하였다. 이는 김병미와 이재명의 연구에서²⁹⁾ 착용하지 않는 의복을 가족, 친지에게 줌, 그대로 보관하거나 쓰레기와 함께 버림, 고쳐서 재활용, 헌옷수거함에 넣음 순으로 처리한 것과 달랐다. 특히 헌 옷과 새 옷 모두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비율은 극히 낮게 나타나 처리방법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안 입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헌 옷과 새 옷 모두 그대로 보관하는 비율이 10~30%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사장의복 발생비율을 가늠할 수 있다.

〈표 7〉 성인여성의 집단특성에 따른 의복 복종별 보유현황 비교

	20대	30대	40대	50대	F	직장인	학생	주부	F	충동구매율 집단			F
										1(n=75)	2(n=82)	3(n=77)	
반팔민소베티셔츠	10.5 ^b	7.5 ^a	7.5 ^a	9.7 ^b	10.204***	7.9 ^a	10.5 ^b	8.0 ^a	11.061***	7.8 ^a	9.1 ^{ab}	9.9 ^b	4.831**
긴팔티셔츠	7.9 ^{ab}	6.5 ^a	6.4 ^a	8.6 ^b	3.891**	7.0	7.8	7.0	1.435	6.2 ^a	7.8 ^a	7.9 ^b	4.775**
후드맨투맨	5.6 ^a	3.7 ^b	3.5 ^{ab}	2.7 ^a	14.943***	3.6 ^a	5.5 ^b	3.2 ^a	19.925***	3.4 ^a	4.6 ^a	4.7 ^b	6.011**
셔츠블라우스	5.9 ^{ab}	5.4 ^{ab}	5.0 ^a	6.6 ^b	1.847	5.7	5.9	5.3	0.646	4.8 ^a	6.1 ^b	6.1 ^b	4.445*
조끼	1.7 ^a	2.8 ^b	3.1 ^b	3.0 ^b	7.696***	3.1 ^b	1.7 ^a	2.8 ^b	12.152***	2.3	2.8	2.4	1.313
스웨터/가디건	6.4 ^b	5.2 ^{ab}	4.8 ^a	5.7 ^{ab}	3.426*	5.3	6.3	5.3	2.913	4.8 ^a	6.3 ^b	5.8 ^b	5.446**
절퍼	4.8	4.0	3.8	4.9	2.324	4.2	4.8	4.0	1.478	3.7 ^a	5.0 ^b	4.3 ^{ab}	4.095*
파카/코트	2.8 ^a	3.1 ^a	3.5 ^a	4.5 ^b	5.696**	3.6 ^a	2.8 ^a	3.5 ^b	3.550*	2.8 ^a	3.3 ^{ab}	3.6 ^b	3.066*
버버리/정장코트	2.4 ^a	3.4 ^b	3.3 ^b	3.0 ^{ab}	4.339**	3.5 ^b	2.3 ^a	2.9 ^a	9.704***	2.6	3.2	3.0	2.148
재킷	5.0 ^b	6.7 ^b	6.0 ^{ab}	7.0 ^b	4.574**	7.1 ^b	5.0 ^a	5.5 ^a	9.734***	5.4	6.1	6.2	1.215
원피스	5.6 ^{ab}	6.8 ^b	5.5 ^{ab}	4.1 ^a	3.313*	6.1	5.5	5.3	0.766	4.7 ^a	6.1 ^b	6.2 ^b	3.415*
치마	5.8	6.3	5.8	5.2	0.564	6.2	5.8	5.6	0.416	4.9 ^a	6.4 ^b	6.3 ^b	3.668*
바지	7.3 ^a	8.5 ^{ab}	9.0 ^{bc}	10.2 ^c	4.728**	9.6 ^b	7.1 ^a	8.4 ^a	9.013***	7.0 ^a	9.3 ^b	8.6 ^b	6.969**
브래지어	6.6 ^b	5.6 ^{ab}	4.8 ^a	6.4 ^b	4.263**	5.2 ^a	6.6 ^b	6.2 ^{ab}	4.802**	4.8 ^a	6.1 ^b	6.8 ^b	8.972***
상의내의	5.3	5.1	5.1	5.8	0.505	5.3	5.2	5.4	0.097	4.6 ^a	5.7 ^b	5.5 ^b	3.657*
팬티	9.2 ^b	8.0 ^a	7.5 ^a	9.3 ^b	5.539**	8.0	9.0	8.3	1.798	8.0 ^a	9.0 ^b	8.3 ^b	4.010*
스카프/목도리	4.7 ^a	5.7 ^a	5.6 ^a	7.4 ^b	5.617**	6.2 ^b	4.7 ^a	5.7 ^b	5.990**	4.9	6.1	5.5	2.821
운동화	4.7 ^b	4.0 ^b	2.8 ^a	2.8 ^a	9.282***	3.6 ^a	4.7 ^b	2.9 ^a	10.255***	2.9 ^a	4.3 ^b	4.4 ^b	10.352***
구두	5.2 ^a	5.3 ^a	5.2 ^a	7.7 ^b	4.613**	5.7	5.1	6.1	1.608	4.4 ^a	6.2 ^b	5.9 ^b	6.239**
양말/스타킹	11.4 ^b	8.1 ^a	7.6 ^a	12.5 ^b	13.966***	8.6 ^b	11.4 ^b	9.3 ^a	7.819**	8.8	10.6	10.0	2.890
가방/핸드백	6.1 ^a	5.9 ^a	6.0 ^a	8.0 ^b	3.128*	6.2	6.0	6.8	0.850	5.3 ^a	6.8 ^b	6.6 ^b	4.980**

* p<0.05, ** p<0.01, *** p<0.001, 일파셋은 a<b<c이며 Duncan 사후검증의 집단 간 유의차를 뜻함

〈표 8〉 연령과 직업에 따른 의복 착용별 자주 착용하는 의복 수와 폐기한 의복 수

복종	청년구분	자주 착용하는 의복 수(의복 활용량)						폐기한 의복 수(의복 폐기량)					
		20대	30대	40대	50대	F	직장인	학생	주부	F	직장인	학생	주부
반팔인스매티셔츠	6.3 ^a	4.8 ^{ab}	4.5 ^a	5.9 ^{bc}	6.061**	6.808**	4.8 ^a	6.3 ^a	5.3 ^a	4.374**	2.7 ^b	2.1 ^a	2.8 ^b
	4.6	4.1	4.0	5.1	1.556	0.140	4.4	4.5	4.3	5.747**	2.3 ^b	1.5 ^a	2.3 ^b
긴팔티셔츠	3.4 ^a	2.5 ^b	2.4 ^{ab}	1.7 ^a	7.055***	8.964***	2.3 ^a	3.4 ^a	2.4 ^a	3.255*	1.3	1.0	1.1
	3.0 ^a	3.7 ^{ab}	2.9 ^a	4.2 ^b	2.810*	3.513*	3.8 ^b	3.0 ^a	3.0 ^a	6.564***	1.6 ^b	0.9 ^a	1.4 ^b
셔츠블라우스	0.9 ^a	2.0 ^b	2.2 ^b	2.1 ^b	10.906***	16.009***	2.1 ^b	0.9 ^a	2.0 ^b	5.384**	0.9 ^b	0.5 ^a	0.8 ^{ab}
	3.9	3.7	3.1	3.9	1.532	0.371	3.6	3.8	3.5	10.009***	1.6 ^b	0.8 ^a	1.3 ^b
스웨터/카디건	2.9	2.6	2.5	2.9	0.677	0.531	2.7	2.8	2.5	6.260***	1.3 ^b	0.8 ^a	1.1 ^{ab}
	1.9 ^a	2.0 ^a	2.2 ^a	3.1 ^b	5.193**	2.295	2.3	1.9	2.4	8.694***	1.1 ^b	0.6 ^a	1.0 ^b
파카코트	1.7 ^a	2.4 ^b	2.3 ^b	2.2 ^{ab}	3.487*	7.363**	2.5 ^b	1.7 ^a	2.0 ^{ab}	12.721***	1.0 ^b	0.5 ^a	0.9 ^b
	3.2 ^a	4.5 ^b	4.6 ^b	4.4 ^b	5.437**	16.376***	5.1 ^b	3.1 ^a	3.5 ^a	9.455***	2.3 ^b	1.3 ^a	1.9 ^b
재킷	3.3	3.9	3.9	2.7	1.966	1.012	3.8	3.2	3.4	13.812***	2.0 ^b	1.0 ^a	1.7 ^b
	3.5	3.6	3.8	2.6	1.399	1.489	3.7	3.4	2.9	12.932***	2.0 ^b	1.2 ^a	1.9 ^b
원피스	4.7 ^a	5.4 ^{ab}	6.2 ^b	6.5 ^b	4.519**	8.021***	6.2 ^b	4.6 ^a	5.5 ^b	16.870***	2.7 ^c	1.3 ^a	2.1 ^b
	5.5 ^a	4.3 ^{ab}	3.8 ^a	5.2 ^{bc}	6.181***	5.087**	4.2 ^a	5.4 ^b	4.8 ^{ab}	6.109**	1.8 ^b	1.2 ^a	1.4 ^{ab}
상의내의	4.4	4.1	3.9	4.7	0.854	0.092	4.2	4.3	4.3	8.853***	1.7 ^b	1.0 ^a	1.5 ^b
	7.6 ^a	6.0 ^a	5.9 ^a	7.6 ^b	6.496***	4.230*	6.3 ^a	7.5 ^b	6.4 ^a	4.417**	2.5 ^b	1.6 ^a	2.0 ^a
팬티	2.6 ^a	3.5 ^{ab}	3.1 ^a	4.3 ^b	4.697**	4.969**	3.5 ^b	2.6 ^a	3.7 ^b	11.202**	1.2 ^b	0.5 ^a	1.0 ^b
	3.1 ^c	2.8 ^{ab}	2.2 ^{ab}	1.9 ^a	5.553**	5.072**	2.5 ^a	3.1 ^b	2.3 ^a	5.677**	1.4 ^b	0.8 ^a	0.9 ^a
운동화	2.8 ^a	3.5 ^{ab}	3.9 ^{bc}	4.6 ^c	4.823**	6.823**	3.7 ^b	2.8 ^a	4.2 ^b	17.303***	1.8 ^b	0.7 ^a	1.5 ^b
	8.6 ^a	5.6 ^a	5.6 ^a	8.7 ^b	16.696***	11.947***	6.3 ^a	8.5 ^b	6.3 ^a	1.104	2.7	2.4	2.5
양말스타킹	3.9	3.7	3.8	4.2	0.363	1.422	3.7	3.8	4.3	6.080**	1.4 ^b	0.7 ^a	1.0 ^{ab}
	3.9	3.7	3.8	4.2	0.363	1.422	3.7	3.8	4.3	6.080**	1.4 ^b	0.7 ^a	1.0 ^{ab}

* p<0.05, ** p<0.01, *** p<0.001. 알파벳은 a<b<c이며 Duncan 사후검증의 집단 간 유의차를 뜻함

<표 9> 사장의복 처리방법의 분포

(단위:N(%))

현옷	새옷	새 옷 처리방법							
		수선 후 입음	타인에게 줌	현옷 수거함	사회기관에 보냄	교환/판매	쓰레기봉투에 버림	그대로 보관	전체
현 옷 처 리 방 법	수선 후 입음	3(1.3)	-	-	-	-	-	1(0.4)	4(1.7)
	타인에게 줌	4(1.7)	9(3.8)	-	-	-	-	6(2.6)	19(8.1)
	현옷수거함	15(6.4)	69(29.5)	38(16.2)	1(0.4)	3(1.3)	-	37(15.8)	163(69.7)
	사회기관에 보냄	1(0.4)	1(0.4)	-	2(0.9)	-	-	-	4(1.7)
	교환/판매	-	-	-	-	1(0.4)	-	1(0.4)	2(0.9)
	쓰레기봉투	1(0.4)	5(2.1)	6(2.6)	-	-	4(1.7)	5(2.1)	21(9.0)
	그대로 보관	3(1.3)	4(1.7)	-	-	-	-	14(6.0)	21(9.0)
	전체	27(11.5)	88(37.6)	44(18.8)	3(1.3)	4(1.7)	4(1.7)	64(27.4)	234(100)

*음영은 분포율 10%이상을 나타냄

<표 10> 직업별 사장의복 처리방법(새 옷)

처리방법	직업구분			직장인			학생			주부			전체	χ^2
	빈도	표 %	열 %	빈도	표 %	열 %	빈도	표 %	열 %					
수선 후 입음	11	4.7	12.0	11	4.7	12.4	5	2.1	9.4	27(11.5)	22.164*			
타인에게 줌	43	18.4	46.7	21	9.0	23.6	24	10.3	45.3	88(37.6)				
현옷수거함	19	8.1	20.7	15	6.4	16.9	10	4.3	18.9	44(18.8)				
사회기관에 보냄	2	0.9	2.2	1	0.4	1.1	-	-	-	3(1.3)				
물물교환, 판매	1	0.4	1.1	3	1.3	3.4	-	-	-	4(1.7)				
쓰레기봉투	1	0.4	1.1	2	0.9	2.2	1	0.4	1.9	4(1.7)				
그대로 보관	15	6.4	16.3	36	15.4	40.4	13	5.6	24.5	64(27.4)				
소 계	92	39.3	100.0	89	38.0	100.0	53	22.6	100.0	234(100)				

*음영은 전체에 대한 분포율 10%이상을 나타냄 *는 $p<0.05$ 를 뜻함

집단별로 사장의복의 처리방법을 비교하면 연령에 따른 유의차는 없었으나 직업에 따라 새 옷의 처리방법이 유의적으로 달랐고 의류산업의 상대적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수준에 따라 새 옷과 현 옷의 처리방법이 달랐다. 먼저 직업별 새 옷 처리 방법을 비교하면<표 10> 직장인은 타인, 수거함, 보관, 수선의 순이었으나 주부는 타인, 보관, 수거함, 수선의 순으로 나타나 직장인보다 보관비중이 높고 수거함 비중이 줄었으며 학생은 보관, 타인, 수거함, 수선의 순으로 나타나 세 집단 중 보관비중이 가장 컸고 타인비중이 가장 적었다.

따라서 사장의복 발생 가능성은 직장인이 가장 적고 학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의류산업의 상대적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수준 집단별 처리방법을 비교한 결과<표 11> 새 옷의 경우 환경인식수준이 낮은 집단 1과 2는 그대로 보관하는 비율이 25.0%와 38.2%로 타인에게 주는 비율 16.7%, 27.3%보다 높아 성인여성 전체의 처리순서와 차이를 보였고 환경인식수준이 높은 집단 3과 4는 전체의 처리방법과 순서는 같으나 타인에게 주는 비율이 45.8%, 71.4%로 현저히 높고 그대로 보관하는 비율은 18.6%, 0%로 매우 낮았

〈표 11〉 의류산업의 상대적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집단별 사장의복 처리방법

처리방법	환경오염 인식	매우 적은 편		약간 적은 편		보통		약간 많은 편		매우 많은 편		전체	χ ²
		N (표%)	열 %	N(표%)	열 %	N (표%)	열 %	N(표%)	열 %	N (표%)	열 %		
새 옷	수선후 입을	3(1.3)	25.0	8(3.4)	14.5	7(3.0)	6.9	7(3.0)	11.9	2(0.9)	28.6	2711.5)	37.239*
	타인에게 줌	2(0.9)	16.7	15(6.4)	27.3	39(16.7)	38.6	27(11.5)	45.8	5(2.1)	71.4	88(37.6)	
	헌옷수거함	2(0.9)	16.7	9(3.8)	16.4	23(9.8)	22.8	10(4.3)	16.9	-	-	44(18.8)	
	사회기관에 보냄	-	-	-	-	-	-	3(1.3)	5.1	-	-	3(1.3)	
	물물교환, 판매	1(0.4)	8.3	1(0.4)	1.8	1(0.4)	1.0	1(0.4)	1.7	-	-	4(1.7)	
	쓰레기봉투	1(0.4)	8.3	1(0.4)	1.8	2(0.9)	2.0	-	-	-	-	4(1.7)	
	그대로 보관	3(1.3)	25.0	21(9.0)	38.2	29(12.4)	28.7	11(4.7)	18.6	-	-	64(27.4)	
	소 계	12(5.1)	100	55(23.5)	100	101(43.2)	100	59(25.2)	100	7(3.0)	100	234(100)	
헌 옷	수선후 입을	1(0.4)	8.3	1(0.4)	1.8	2(0.9)	2.0	-	-	-	-	4(1.7)	36.538*
	타인에게 줌			7(3.0)	12.7	5(2.1)	5.0	5(2.1)	8.5	2(0.9)	28.6	19(8.1)	
	헌옷수거함	8(3.4)	66.7	37(15.8)	67.3	66(28.2)	65.3	47(20.1)	79.7	5(2.1)	71.4	163(69.7)	
	사회기관에 보냄	-	-	-	-	1(0.4)	1.0	3(1.3)	5.1	-	-	4(1.7)	
	물물교환, 판매	1(0.4)	8.3	-	-	1(0.4)	1.0	-	-	-	-	2(0.9)	
	쓰레기봉투	1(0.4)	8.3	6(2.6)	10.9	12(5.1)	11.9	2(0.9)	3.4	-	-	21(9.0)	
	그대로 보관	1(0.4)	8.3	4(1.7)	7.3	14(6.0)	13.9	2(0.9)	3.4	-	-	21(9.0)	
	소 계	12(5.1)	100	55(23.5)	100	101(43.2)	100	59(25.2)	100	7(3.0)	100	234(100)	

* p<0.05

다. 따라서 의류산업의 상대적 환경오염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새 옷을 타인에게 주는 비율은 뚜렷이 증가하고 그대로 보관하는 비율은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헌 옷의 경우도 환경오염 인식수준에 따라 처리방법이 유의적으로 달라 환경오염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타인에게 주는 비율과 헌옷수거함에 넣는 비율이 증가하는 편이었다. 이와 같이 의류산업의 상대적 환경오염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새 옷을 타인에게 주거나 헌옷을 수거함에 넣는 등 재활용비율이 높고 사장의복 발생비율이 낮다고 하겠다.

착용하지 않는 옷을 그대로 보관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표 12〉 '아까워서'가 4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행이 돌아오면 다시 입으려고

'23.1%, '처리방법을 몰라서' 11.1%, '나중에 적당한 사람 주려고' 10.3% 순이었다.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20대와 50대는 아까워서 보관하는 비율이 각각 52.8%, 60.0%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나 40대는 평균과 유사하였고 30대는 37.9%로 평균보다 낮았다. 유행하면 다시 입으려는 이유와 처리방법을 몰라 보관하는 경우는 20~30대가 전체 평균보다 높고 40~50대가 낮았으며 타인에게 주려고 보관하는 비율은 2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와 같이 사장의복은 대체로 아깝게 여기는 마음과 재유행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나 처리방법을 몰라 발생하는 비율도 전체 11%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20~30대 비율이 매우 높았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표 12> 사장의복의 보관이유

(단위:N(행%))

연령 보관이유	처리방법을 몰라서	아까워서	폐품활용을 위해	나중에 타인 주려고	유행을 기다림	복지시설 위탁	전체	χ^2
20대	10(11.2)	47(52.8)	7(7.9)	3(3.4)	22(24.7)	-	89(100)	26.536*
30대	12(18.2)	25(37.9)	4(6.1)	8(12.1)	17(25.8)	-	66(100)	
40대	2(4.1)	24(49.0)	3(6.1)	8(16.3)	10(20.4)	2(4.1)	49(100)	
50대	2(6.7)	18(60.0)	-	5(16.7)	5(16.7)	-	30(100)	
전체	26(11.1)	114(48.7)	14(6.0)	24(10.3)	54(23.1)	2(0.9)	234(100)	

* p<0.05, ** p<0.01

<표 13> 타인의 옷을 재활용할 의사

문항	이유	입음		남의 옷이라 안 입음	받아두었다가 타인 줌	전체
		경제적 이유	자원 재활용측면			
타인의 옷을 재활용할 의사는?		91(39.2)	67(28.9)	37(15.9)	37(15.9)	232(100)

** p<0.01, *** p<0.001, 알파벳은 a<b이며 Duncan 사후검증의 집단 간 유의차를 뜻함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재활용 현황

재활용 현황 조사는 타인의 옷 재활용과 본인의 옷 재활용을 구분하였 조사하였다. 타인의 옷 재활용은 착용의사와 활용경험 및 타인에게 많이 준 의복종류를 조사하였고 본인의 옷 재활용은 수선으로 재활용하고 싶은 옷의 양과 실제 수선으로 재활용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먼저 타인의 옷 재활용에 대해<표 13> 전체의 68.1%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15.9%는 본인이 재활용하지는 않으나 타인에게 주겠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15.9%는 남의 옷이라 안 입겠다고 답해 선행연구와³⁰⁾ 유사한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경제적 이유는 선행연구의 59.1%보다 확연히 적은 39.2%이었고 자원 재활용은 18.7%보다 훨씬 많은 28.9%이므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변화가 현옷 재활용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옷은 실제로 받아 입은 경험은<표 14> 평균 2.7로 보통보다 낮았고, '약간 적음' 이하가 58.5%이었고 '보통'이 9.8%, '약간 많음' 이상이 31.7%로 실제 활용경험은 여전히 적은 편이었다. 연령별 직업별 차이는 없었다. 타인에게 가장 많이 준 복종은<표 15> 정장상의와 캐주얼상의가 각각 37.7%, 30.7%로 매우 많은 편이었고 정장하의와 캐주얼하의 및 스포츠웨어는 각각 0.4%, 5.3%, 0.9%로 매우 적은 편이었으며 스카프/목도리/모자 등의 패션소품은 7.9%, 교복/체육복은 7.1%였다. 직장인과 주부는 정장상의를 주는 경우가 많았고 학생은 캐주얼상의를 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스카프/목도리/모자 등의 패션소품은 주부와 직장인이 학생보다 훨씬 많이 주는 편이었다. 이와 같이 의복치수에 따라 착용이 제한되는 하의보다 상대적으로 덜 제한되는 상의나 패션소품을 더 흔히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70% 이상이 타인의 옷 재활용에 긍정적 의사를 표현한 것과 달리 수선을 통해 자신의 옷을 재활용하려는 의사는 평균 3.1로 높지 않았다. <표 16> 직업에 따라 유의적으로 달라 직장인이 2.8로 학생이나 주부보다 수선해서 재활용하고 싶은 옷이 적었다. 특히 수선하여 재활용한 경험은 <표 14> 평균 1.7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모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4> 헌 옷 재활용 경험

(단위: N(%))

문항	경험수준	매우 적음	약간 적음	보통	약간 많음	매우 많음	전체	평균
타인의 헌옷 받아 입음		30(12.8)	107(45.7)	23(9.8)	61(26.1)	13(5.6)	234(100)	2.7
본인의 헌옷 수선경험		86(36.8)	131(56.0)	17(7.3)	-	-	234(100)	1.7

<표 15> 타인에게 가장 많이 준 옷의 종류

(단위:N(행%))

직업	연령	정장상의	캐주얼상의	교복/체육복	정장하의	캐주얼하의	스포츠웨어	스카프/모자 등	전체	χ^2
직장인		40(45.5)	26(29.5)	9(10.2)	-	4(4.5)	-	9(10.2)	88(100)	26.365**
학생		21(23.6)	33(37.1)	24(27.0)	1(1.1)	6(6.5)	1(1.1)	3(3.4)	89(100)	
주부		25(49.0)	11(21.6)	6(11.8)	-	2(3.9)	1(2.0)	6(11.8)	51(100)	
전체		86(37.7)	70(30.7)	39(17.1)	1(0.4)	12(5.3)	2(0.9)	18(7.9)	228(100)	

* p<0.05, ** p<0.01

<표 16> 수선하여 다시 입고 싶은 옷의 양

문항	집단구분	전체	직업			
			직장인	학생	주부	F
수선 후 입고 싶은 옷 양		3.1	2.8a	3.3b	3.2b	5.377**

* p<0.01, 알파벳은 a<b이며 Duncan 사후검증의 집단 간 유의차를 뜻함

보통이하라고 답했다. 역시 집단별 차이는 없었다.

4. 의류폐기 현황 및 원인

1) 성인여성의 의류폐기 현황 및 원인

실제 폐기한 의복의 특성 및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의복 폐기량 변화와 가장 최근에 폐기한 의복의 특성과 원인을 조사하였다. 의복폐기량 변화는 과거 4~5년전에 비해 최근 2~3년간 폐기한 의복의 양변화로 조사하였고 폐기 의복의 특징은 의복종류, 착용기간, 구입가격, 구입의 계획성, 착용 당시의 만족도, 폐기방법을 조사하였으며 폐기 원인은 품질, 디자인과 개인취향, 관리편의, 체형변화 등 총 21문항을 조사하였다.

4~5년 전에 비해 최근 2~3년간 폐기한 의복 수는<표 17> '비슷함'이 41.9%로 가장 많았지만 '약

간 늘어남'과 '매우 늘어남'이 각각 25.6%, 12%로 그 다음이었고 '약간 줄음'과 '매우 줄음'은 10.7%, 9.8%로 적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의 헌 옷 재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활용경험은 활발하지 못했던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인식변화가 실제 폐기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폐기한 의복의 종류는 <표 18>, <표 19>와 같다. 티셔츠(38.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커트/바지(19.8%), 재킷/코트(18.4%), 셔츠/블라우스(10.7%) 정장 수트(9.8%) 순이었으며 점퍼가 2.6%로 가장 적었다. 연령과 직업에 따라 폐기복종이 달라(표 19) 티셔츠는 20대와 학생의 폐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정장 수트는 30대 이후와 직장인 및 주부의 폐기량이 많아 집단 간 차이가 뚜렷했

다. 그러나 재킷/코트, 스커트/바지의 폐기는 연령 및 직업 간 차이가 적고 유사하였다.

<표 18>에서 복종별 평균착용기간은 정장 수트가 8.3년으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재킷/코트가 6.8년, 스커트/바지와 셔츠/블라우스가 각각 6.0년과 5.9년이었으며 티셔츠와 점퍼는 각각 5.1년과 5.2년으로 나타나 캐주얼웨어의 착용기간이 정장보다 짧은 편이었다. 구입가격은 정장 수트가 34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재킷/코트가 약 19만원, 점퍼가 16만원으로 비싼 편이었으며 스커트/바지가 8만원, 셔츠/블라우스가 7만원으로 중간이었고 티셔츠가 4만원으로 싼 편이었다. 착용당시의 만족도는 정장 수트와 셔츠/블라우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 3.7점이었고 다음으로 재킷/코트가 3.5점이었으며 스커트/바지와 티셔츠는 3.2, 3.1이었고 점퍼가 2.8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복종별 착용만족도의 유의차는 없었고 연령과 직업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폐기한 옷의 구입계획은 전체적으로 충동적 구입이 43.8%로 가장 많았고 필요에 따른 구입이 37.3%, 계획에 의한 구입이 18.9% 순이었다. 복종에 따라 차이를 보여 정장 수트를 제외

한 다른 복종들은 충동적 구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필요에 따른 구입으로 전체경향과 같았으나 정장 수트는 필요에 따른 구입이 47.8%, 계획적 구입이 30.4%, 충동적 구입 21.7%로 필요에 따른 구입이 가장 많고 충동적 구입이 가장 적었다.

의복 폐기 원인<표 20>은 유행경과가 3.6으로 가장 높았고 부속고장이 2.2로 가장 낮았다. 디자인과 취향변화에 관련된 원인들이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 '입을 기회가 적음' 3.5, '내 취향이 변함' 3.3, '많이 입어 싫증남'과 '디자인이 싫음'이 3.2, '디자인이 안어울림'과 '입으면 마음이 불편함'이 3.0으로 나타났다. 품질과 불편함에 관련된 이유 중 '색 바래고 보풀발생'은 3.2로 높았으나 그 외 다른 원인들은 2.2~2.8로 낮았다. '세탁관리의 어려움'이 2.4, '두껍고 무거움'이 2.5, '세탁 후 치수 변함'과 '옷의 질이 나쁨'이 2.6, '착용 시 활동이 불편함'과 '오래 입어 옷의 형태가 변함'이 2.8이었다. 이는 유연실(1996)의³¹⁾ 연구결과에서 유행, 디자인 싫증, 입을 기회 적음, 내 취향 변화, 디자인 싫음 등 디자인과 취향관련 원인들이 3.0~3.4로 높게 나타났고 품질과 불편함에 관련된

<표 17> 과거 4~5년전에 비해 최근에 버린 의복폐기량의 변화

(단위:N(%))

문항 \ 변화	매우 줄음	약간 줄음	비슷	약간 늘어남	매우 늘어남	전체
의복 폐기량 변화	23(9.8)	25(10.7)	98(41.9)	60(25.6)	28(12.0)	234(100)

<표 18> 폐기한 옷의 특성

복종	특성	전체빈도 (%)	착용기간 (년)*	가격(원)	만족도	구입계획(행 %)			
						필요	충동	계획	소계
정장 수트		23(9.8)	8.3	341,957	3.7	11(47.8)	5(21.7)	7(30.4)	23(100)
티셔츠		91(38.9)	5.1	42,662	3.1	36(39.6)	39(42.9)	16(17.6)	91(100)
재킷/코트		43(18.4)	6.8	185,442	3.5	10(23.8)	23(54.8)	9(21.4)	43(100)
스커트/바지		46(19.7)	6.0	85,826	3.2	19(41.3)	21(45.7)	6(13.0)	46(100)
셔츠/블라우스		25(10.7)	5.9	71,440	3.7	8(32.0)	11(44.0)	6(24.0)	25(100)
점퍼		6(2.6)	5.2	160,000	2.8	3(50.0)	3(50.0)	-	6(100)
전체		234(100)	6.0	113,491	3.3	87(37.3)	102(43.8)	44(18.9)	234(100)

<표 19> 연령별 직업별 폐기한 옷의 종류

(단위:N(율%))

집단구분 문항구분	20대 (N=89)	30대 (N=66)	40대 (N=49)	50대 (N=30)	χ^2	직장인 (N=92)	학생 (N=89)	주부 (N=53)	χ^2
정장 수트	-	9(13.6)	10(20.4)	4(13.3)	15.094	14(15.2)		9(17.0)	11.247
티셔츠	44(49.4)	24(36.4)	17(34.7)	6(20.0)	*	30(32.6)	44(49.4)	17(32.1)	*
제킷/코트	16(18.0)	12(18.2)	8(16.3)	7(23.3)		16(17.4)	17(19.0)	10(18.9)	
스커트/바지	20(22.5)	14(21.2)	7(14.3)	5(16.7)		19(20.7)	19(21.3)	8(15.1)	
셔츠/블라우스	8(9.0)	5(7.6)	7(14.3)	5(16.7)		10(10.9)	8(9.0)	7(13.2)	
점퍼	1(1.1)	2(3.0)	-	3(10.0)		3(3.3)	1(1.1)	2(3.8)	

* p<0.05를 뜻함

<표 20> 폐기 복종별 폐기원인

문항구분	복종	전체	정장 수트	티셔츠	제킷/코트	스커트/바지	셔츠/블라우스	점퍼	F
품질	옷 질 나쁨	2.6	2.3a	3.0b	2.2a	2.4ab	2.6ab	3.0b	4.446**
	색 바래고 보풀발생	3.2	2.8a	3.7b	2.6a	2.8ab	3.2ab	3.0ab	5.896***
	부속고장	2.2	2.8c	2.4abc	1.9ab	1.8a	2.2abc	2.7bc	3.935**
	오래 입어 형태 변함	2.8	2.8ab	3.2b	2.1a	2.3a	2.9ab	2.8ab	7.392***
	세탁 후 치수 변함	2.6	2.9b	2.8b	1.9a	2.7ab	2.7ab	2.2a	3.742**
내 체형 변함		2.9	3.4	2.9	2.6	3.0	3.0	2.3	1.683
디자인 변 화	다른 옷과 조화 힘들	2.9	3.1	2.9	2.7	2.8	2.9	3.2	0.521
	유행지남	3.6	3.9	3.5	3.7	3.5	3.4	3.5	0.510
	디자인 안 어울림	3.0	2.9	3.0	2.9	3.0	2.8	3.2	0.259
	디자인 싫음	3.2	3.1	3.3	3.1	3.3	3.1	3.7	0.489
	내 취향변함	3.3	3.0	3.3	3.6	3.4	3.1	3.2	1.260
	많이 입어 싫증남	3.2	2.9	3.5	2.9	2.8	3.4	3.5	3.037
	입으면 마음 불편함	3.0	2.9	3.0	3.0	2.9	3.2	3.5	0.478
	나이, 신분에 안맞음	2.9	3.2	2.9	2.5	3.1	3.1	2.0	2.058
	디자인 싫증남	3.2	3.4	3.3	3.1	3.2	3.4	3.0	0.354
	입을 기회 적음	3.5	3.9	3.4	3.4	3.4	3.4	3.5	0.670
	타인 반응 나쁨	2.5	2.7	2.7	2.5	2.2	2.5	2.7	1.330
	비슷한 새 옷 있음	2.9	3.0	2.9	2.8	2.8	3.2	3.5	0.661
세탁 관리 어려움		2.4	2.3	2.3	2.7	2.3	2.4	3.2	1.726
활동	착용 시 활동 불편함	2.8	3.2	2.7	2.8	3.0	2.7	2.8	0.843
	너무 두껍고 무거움	2.5	3.1b	2.6ab	2.5ab	2.2a	2.3a	3.0b	2.341*

** p<0.01, * p<0.05, *** p<0.001, 알파벳은 a<b이며 Duncan 사후검증의 집단 간 유의차를 뜻함

원인인 부속고장, 두껍고 무거워, 세탁 후 치수변화, 옷의 질이 나쁨, 활동불편 및 옷의 형태 변화 등이 2.0~2.7로 낮게 나타난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유연실의 연구에서는 '새로 산 다른 옷'이 가장 큰 폐기원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새 옷'은 2.9로 낮은 편이었고 '유행이 지나서'가

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복종별로 폐기원인을 비교하면 모든 복종에서 디자인과 취향관련 원인이 높았고 특히 '유행지남'과 '입을 기회 적음'이 가장 높은 편이었으며 '디자인 싫음', '디자인 싫증', '취향변화'도 3.0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점퍼는 '유행지남', '입을 기회 적음', '디자인 싫음', '디자인 싫증'과 더불어 '착용 시 마음 불편'과 '비슷한 새 옷 있음' 등의 점수들도 3.5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체형변화'로 인한 폐기점수는 정장수트, 스커트/바지, 셔츠/블라우스 등 정장류가 캐주얼웨어보다 3.0이상으로 높았고 관리편의성에서는 정장수트가 '활동불편'과 '두껍고 무거움'에서, 점퍼가 '세탁관리의 어려움'과 '두껍고 무거움'에서, 스커트/바지가 '활동불편'에서 3.0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품

질관련 점수를 비교하면 '색바래고 보풀발생'으로 인한 폐기점수는 티셔츠에서 3.9로 가장 높았고 셔츠/블라우스와 점퍼에서도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오래 입어 형태변화'는 티셔츠에서, '옷 질 나쁨'은 점퍼에서 3.0 이상으로 높았다.

한편 품질관련 원인들과 불편함 관련 원인들은 디자인 및 개인취향 관련 원인들보다 대체로 낮은 점수였지만 복종별 차이는 유의적으로 뚜렷했다. '색바래고 보풀발생', '오래 착용으로 인한 형태변화'는 다른 복종보다 티셔츠 폐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고 '나쁜 품질'은 티셔츠와 점퍼의 폐기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부속고장'은 정장 수트의 폐기에, '세탁 후 치수변화'는 정장 수트와 티셔츠 폐기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특히 '세탁 후 치수변화'로 인한 폐기는 재킷과 스커트나 바지로 구성

<표 21> 연령별 직업별 폐기원인

문항구분		연령					직업			
		20대	30대	40대	50대	F	직장인	학생	주부	F
착용기간(M=6.0)		4.4a	6.2b	7.8c	7.1bc	14.150***	6.5b	4.4a	7.7c	19.636***
품 질	옷 질 나쁨	2.9b	2.5ab	2.4a	2.3a	3.428*	2.4a	2.9b	2.5a	3.853*
	색 바래고 보풀발생	3.4	2.9	3.2	3.1	1.974	2.9	3.3	3.2	2.009
	부속고장	2.2	2.2	2.5	2.1	0.902	2.2	2.1	2.4	0.552
	오래 입어 형태 변함	2.8	2.5	3.0	2.7	1.659	2.6	2.8	2.9	0.879
	세탁 후 치수 변함	2.7	2.5	2.7	2.4	0.605	2.6	2.7	2.5	0.283
내 체형 변함		2.6a	3.1ab	3.4b	2.7a	4.419**	3.1b	2.6a	3.0b	4.342*
디 자 인 및 취 향 변 화	다른 옷과 조화 힘들	2.9	2.9	2.8	2.9	0.154	2.8	2.9	2.9	0.308
	유행지남	3.4	3.7	3.5	3.8	1.314	3.4a	3.4a	4.0b	5.294**
	디자인 안 어울림	3.1	2.9	2.8	2.7	1.297	2.8	3.1	3.0	1.600
	디자인 싫음	3.4	3.1	3.1	3.0	2.141	3.0a	3.4b	3.3ab	3.524*
	내 취향 변함	3.5b	3.4ab	2.9a	3.2ab	2.875*	3.1	3.5	3.3	3.037*
	많이 입어 싫증남	3.2	3.2	3.0	3.3	0.360	3.1	3.2	3.3	0.395
	입으면 마음 불편함	3.0	3.0	2.9	2.9	0.433	2.9	3.0	3.2	1.213
	나이, 신분에 안맞음	2.8	3.0	3.0	2.7	0.737	2.9	2.7	3.2	1.963
	디자인 싫증남	3.4	3.1	3.2	3.1	1.090	3.1	3.4	3.2	1.962
	입을 기회 적음	3.2a	3.8b	3.4ab	3.5ab	4.063**	3.6	3.2	3.6	3.003
	타인 반응 나쁨	2.4	2.7	2.6	2.3	1.340	2.6	2.4	2.6	0.712
	비슷한 새 옷 있음	2.9	2.9	2.9	2.8	0.071	2.9	3.0	2.9	0.096
불 편	세탁 관리 어려움	2.4	2.4	2.3	2.6	0.585	2.4	2.4	2.5	0.061
	착용 시 활동 불편함	2.6a	3.2b	3.0ab	2.6a	3.756*	3.1b	2.6a	2.9ab	3.924*
	너무 두껍고 무거움	2.3	2.6	2.8	2.4	2.315	2.7	2.3	2.6	2.650

** p<0.01, ** p<0.01, *** p<0.001이며 알파벳은 a<b이며 Duncan 사후검증에서 집단 간 유의차를 뜻함

된 정장수트에서 가장 높고 중의류인 티셔츠, 셔츠/블라우스, 스커트/바지의 점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외의류인 재킷/코트나 점퍼의 점수보다 매우 컸으므로 '세탁 후 치수변화'로 인한 폐기는 상의보다 하의의 폐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여유량이 많은 외의류보다 외의류 안에 입는 중의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두껍고 무거워서' 폐기하는 경향은 정장 수트와 점퍼에서 높게, 스커트/바지와 셔츠/블라우스에서 낮게 나타났다.

2) 집단별 폐기의복의 착용기간과 폐기원인 비교

연령 및 직업에 따라 착용기간과 폐기원인을 조사한 결과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표 21>. 먼저 착용기간은 20대가 가장 짧았고 30대, 40대로 갈수록 착용기간이 길어졌으며 50대는 30~40대와 유사하였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7.7년으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직장인이 6.5년이었으며 학생이 가장 짧아 4.4년으로 유의적으로 달랐다. 폐기원인도 연령과 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연령에 따라 '옷의 질 나쁨', '체형변화', '취향 변화', '입을 기회가 적음', '착용 시 활동이 불편함'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직업에 따라 '옷의 질이 나쁨', '체형변화', '유행', '디자인 싫음', '너무 두껍고 무거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 폐기원인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나쁜 품질'이 폐기에 미치는 영향은 40~50대보다 20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취향변화'로 인한 폐기도 20대가 40대보다 뚜렷이 높았으나 '착용 기회가 적어서' 폐기하는 경우는 30대 이후가 20대보다 높았다. 체형변화로 인한 폐기는 20대와 50대가 비슷하고 30대부터 높아져 40대가 가장 높았다. 이는 신체치수 변화에 따라 성인여성을 20~24세, 25~34세, 35~49세, 50~59세로 구분할 수 있고 20대 전반과 후반의 차이보다는 30대 중반부터 그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³²⁾ 체형변화로 인한 폐기증

가가 30대와 40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0대는 '나쁜 품질'과 '취향변화'로 인한 폐기가 많았고 30대 이상은 '착용 기회가 적어서'와 '체형변화'로 인한 폐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직업별로 비교하면 '지난 유행'으로 인한 폐기는 주부가 높고 직장인과 학생이 낮았으며 이는 착용기간이 긴 주부가 다른 집단보다 오래 착용함으로써 유행이 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나쁜 품질'로 인한 폐기는 학생이 2.9로 가장 높았고 직장인과 주부는 2.4, 2.5로 유의적으로 낮았다. '체형변화'로 인한 폐기는 직장인과 주부가 학생보다 월등히 높았고 '착용 시 불편함'으로 인한 폐기도 직장인이 학생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학생은 나쁜 품질과 디자인이 싫어 폐기하는 반면 직장인과 주부는 체형변화와 착용 시 불편함으로 인해 폐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주부는 오랜 착용으로 인한 유행경과 때문에 폐기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겠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친환경소비 확산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류관리 및 폐기의 주 담당자인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첫째, 의류 보유 및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사장의복현황을 파악하였고 둘째, 사장의복의 처리현황 및 재활용 현황을 조사하여 의복재활용에 대한 인식변화와 실천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셋째, 실제 폐기한 의복의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2012년 11월~2013년 1월까지 수도권 거주 234명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여성의 의복보유량은 티셔츠와 바지가 7~9벌로 가장 많고 셔츠/블라우스, 스웨터/카디건, 치마, 원피스, 재킷 등 중의류는 5~6벌 있었으며 코트, 파카, 점퍼 등 외의는 3~4벌로 적은 편이었다. 팬티는 매우

많은 편이나 다른 속옷은 중의류와 유사하였고 양말/스타킹을 제외한 패션소품도 중의류와 유사하였다. 20대와 학생은 캐주얼웨어가, 30대 이상과 직장인 및 주부는 외의류가, 50대는 패션소품이, 직장인은 재킷과 바지가 많은 편이었다. 또한 층동적 구입비용이 20% 이상인 성인여성이 옷을 더 많이 보유한 편이었다. 활용량은 겉옷이 2~5벌, 속옷이 4~7벌, 양말/스타킹 이외의 패션소품이 약 3개였다. 많이 보유한 복종의 활용량이 많았고 적게 보유한 복종의 활용량이 적었다. 그러나 많이 보유한 복종의 사장의복량은 약 3벌인 반면 적게 보유한 복종의 사장의복량은 1~2벌로 적게 나타나 보유량이 많은 경우 활용량과 더불어 사장의복양도 많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속옷은 겉옷과 달리 보유량과 활용량이 모두 많고 사장의복량은 1벌 내외로 적었다. 의복활용율은 대체로 70% 내외였고 속옷은 85% 이상으로 겉옷보다 높았다. 폐기량도 같은 경향을 보여 보유량과 활용량이 많은 복종의 폐기량은 약 2~2.5벌, 적은 복종의 폐기량은 1벌 내외였다. 대체로 40대의 폐기가 많은 편이었고 특히 재킷과 가방/핸드백의 폐기는 40대, 30대, 50대, 20대 순으로 연령 간 차이가 뚜렷했다. 학생보다 직장인이 많이 폐기했고 주부는 직장인과 유사하거나 약간 적은 편이었으며 바지는 직장인, 주부, 학생 순으로 적게 폐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장의복의 처리방법으로 현 옷은 약 70%를 현 옷수거함에 넣었으나 새 옷은 타인에게 줌, 그대로 보관, 현옷수거함, 수선 등 다양하게 처리해 차이를 보였다. 과거에 비해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경우는 매우 적었고 타인에게 주거나 현옷 수거함에 재활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늘어 재활용에 대한 인식변화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안 입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관하는 비율이 9~27%로 높게 나타나 사장의복량이 여전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 차이는 없었으나 새옷의 보관비율은 학생이 주부보다 1.6배, 직장인보다 2.5배 높아 학생의 사장의복량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학

생의 폐기량이 가장 적었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의류산업의 환경오염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새 옷의 보관비율이 낮고 재활용 비율이 높았다. 한편 사장의복을 그대로 보관하는 이유는 대체로 아깝게 여기는 마음과 재유행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이었으나 처리방법을 몰라 보관하는 비율도 전체 11%이상이었으며 특히 20~30대 비율이 높았다.

현 옷의 재활용에 대해 전체 68.1%가 긍정적이었고 과거에 비해 경제적 이유보다 재활용 이유가 늘어 재활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선해서 재활용하고 싶은 옷은 보통 정도로 많지 않았고 특히 직장인의 수선의사가 적었으며 실제 재활용 경험도 타인의 옷 재활용은 보통 이하, 수선을 통한 본인의 옷 재활용은 1.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재활용에 대한 의식변화가 재활용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약 80%의 성인여성이 과거에 비해 최근 의복폐기량이 유사하거나 늘었다고 답해 재활용에 대한 인식변화가 실제 폐기량 감소로 이어지지 못함을 나타낸다. 한편 타인에게 준 복종은 정장상의와 캐주얼상의가 많고 정장하의, 캐주얼하의 및 스포츠웨어가 적었으며 스카프/목도리/모자 등의 패션소품은 보통이었다. 이를 통해 의복치수로 인해 착용이 제한되는 하의보다 상대적으로 덜 제한되는 상의나 패션소품을 쉽게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폐기 원인 조사결과 폐기복종은 티셔츠가 약 40%, 스커트/바지와 재킷/코트는 약 20%, 셔츠/블라우스와 정장 수트가 약 10%였다. 티셔츠는 20대와 학생이, 정장 수트는 30대 이후 및 직장인과 주부의 폐기가 많아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재킷/코트와 스커트/바지는 집단 간 폐기량이 유사하였다. 폐기한 의복의 착용기간은 티셔츠와 점퍼가 약 5년이었고 정장류는 캐주얼웨어보다 긴 6~8년이었으며 20대, 30대, 40대 순으로, 학생, 직장인,

주부 순으로 더 길게 착용하는 편이었다. 또한 폐기한 의복의 충동구매율은 대체로 40% 이상으로 성인여성의 평균 충동구매율 30%보다 훨씬 높았으므로 성인여성들은 충동적으로 구입한 옷을 쉽게 폐기한다고 볼 수 있다.

폐기원인은 '지난 유행'이 가장 크고 부속고장이 가장 작았으며 대체로 디자인과 취향변화로 인한 원인이 크고 품질과 불편함 원인이 작았다. 과거에 비해 '새로 산 다른 옷'으로 인한 폐기는 현저히 줄었으나 '지난 유행'을 비롯해 디자인과 취향변화 원인들은 여전히 컸다. 다만 티셔츠는 '색바래고 보풀'이 디자인원인보다 크고 정장 수트는 체형변화로 인한 폐기도 꽤 많았다. 한편 품질 관련 원인들은 대체로 낮은 점수였지만 복종에 따라 달라 티셔츠는 색바래고 보풀, 형태변화, 치수변화로 인한 폐기가, 정장 수트는 치수변화와 부속고장으로 인한 폐기가 많았다. 20대와 학생은 나쁜 품질과 취향변화로 인한 폐기가 많았고 30~40대, 직장인과 주부는 체형변화로 인한 폐기가 많았다. 또한 착용 기회 감소와 활동불편도 30대와 직장인의 주요 폐기원인이었다. 한편 주부는 유행경과로 인한 폐기가 많았으며 이는 주부의 착용기간이 가장 길었던 결과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성인여성 의복량의 약 25%를 활용하지 않는 편이었고 그 중 새 옷의 약 30%는 그대로 보관되고 헌옷의 70%는 수거함에 처리되는 등 실질적인 의복 재사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다양한 재사용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복교환 및 중고의류거래 확대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인여성의 70% 이상이 의복재활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자원 재활용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실제 재활용의사와 재활용현황은 매우 미흡했고 최근 폐기량도

증가하였으므로 성인여성이 쉽게 이행할 수 재활용 방안모색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 사장의복의 가장 큰 보관이유가 '아까워서'였으나 폐기의 가장 큰 원인은 '유행경과'와 '취향변화'였으므로 보관하던 사장의복의 유행이 지나면 폐기로 이어진다고 짐작할 수 있다. 폐기량 증가의 원인인 사장의복량 증가는 의복 보유량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필요한 만큼 보유하는 의생활습관을 널리 권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충동적 구입이 20% 이상인 여성이 의복을 더 많이 갖고 있었고 폐기의복의 충동적 구입비율도 40%로 매우 높았으므로 충동구매가 사장의복 증가와 의복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증가로 이어짐을 적극 홍보하여 신중한 의복구입과 책임 있는 소비태도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학생은 타 집단보다 사장의복을 보관하는 경향이 컸고 20대와 30대는 처리방법을 몰라 보관하는 경향이 컸으므로 사장의복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재활용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사장의복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겠다.

3. 의류산업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인식하는 여성일수록 사장의복 처리 시 재사용을 고려했으나 의류산업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인여성들의 인식은 보통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었다. 따라서 의류상품 생산자들은 의류산업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책임지는 홍보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업체가 생산한 사장의복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재사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색바래고 보풀, 부속고장, 세탁 후 치수변화 등 의복의 나쁜 품질이 폐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으므로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의복폐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거주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직업과 지역을 확대한 추가연구를 실시하여 의복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자료 및 객관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더불어 아깝거나 재유행을 기다리며 보관한 사장의복의 실질적 재활용 현황에 대해 연구를 통해 사장의복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현실화하고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의류 생명연장과 폐기감소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본 연구는 수도권 거주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직업과 지역을 확대한 추가연구를 실시하여 의복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자료 및 객관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더불어 아깝거나 채유행을 기다리며 보관한 사장의복의 실질적 재활용 현황에 대해 연구를 통해 사장의복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현실화하고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의류 생명연장과 폐기감소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 ## 참고문헌
- 1) 이소희, 송화순 (2010). 섬유·의류 산업에서 효소를 이용한 친환경 가공 기술동향, 패션정보와 기술, 7(-), pp.27-34.
 - 2) Textiles Intelligence (2005). Technical Textile Markets, 2nd quarter 2005, Worldwide and regional trends in man-made fiber production, p.88.
 - 3) 장승욱 (2009). IT, NT융합 친환경 고부가가치 의류생산기술,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초록집, pp.8-12.
 - 4) J. M Allwood, S. E. Laursen, C. M. de Rodriguez, N. M P Bocken (2006). Well dressed? : The present and future sustainability of clothing and textiles in the United Kingdom, University of Cambridge Institute for Manufacturing. Mill Lane; UK. pp.1-84.
 - 5) 원유진 (2012. 5. 14). SPA유행에 의류수거함은 넘친다, 국제섬유신문, 검색일 2013. 9. 26. http://www.itnk.co.kr/result.htm?mode=body&page=1&number=37383&keyfield=subject&key=spa%CO%AF%C7%E0%BF%A1+%C0%C7%B7%F9%BC%F6%B0%C5%C7%D4&category=&b_code=d03
 - 6) 송원형, 김효인, 이준우 (2012. 4. 3). 패스트패션(빨리 입고 빨리 버리는 의류 브랜드)의 그늘, 조선일보, 검색일 2013. 7. 25.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ID=2012040300122&FV=패스트패션&searchPage=simple&collectionName=gisa&INDEX_FV=&INDEX_FV=Tl&INDEX_FV=TX&INDEX_FV=KW&AU_FV=&PD_TYPE=false &PD_F0=year&PD_F1=20120403&PD_OP=2&PD_F2=DATA_SORT=1&LIMIT=50&LIST_TYPE=true&PP_F1=
 - 7) J. M Allwood, S. E. Laursen, C. M. de Rodriguez, N. M P Bocken (2006). Well dressed? : The present and future sustainability of clothing and textiles in the United Kingdom, University of Cambridge Institute for Manufacturing. Mill Lane; UK. pp.1-84.
 - 8) 레코드 (2012). Where RE;CODE is inspired?, 코오롱 R E;CODE, 검색일 2013. 3. 20. <http://www.re-code.co.kr/html/about.html>
 - 9) 김성훈, 최연주 (2010). 친환경리사이클 의류 및 섬유제품, 패션정보와 기술, 7(-), pp.73-82.
 - 10) 장남경 (2008). 친환경패션에 대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태도-절적방법을 이용한 탐색적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8(1), pp.31-47.
 - 11) 유병석 (2009. 3. 22). 불황은 나의 전성기, 국민일보 쿠키뉴스, 검색일 2013. 5. 23.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eco&arcid=0921209148&cp=nv>
 - 12) 김시월, 이명숙, 이해임, 권오정, 이진영 (1998). 소비생활과 재활용(I) - 의생활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9), pp.107-125.
 - 13) 노영래, 김시월 (2002). 소비자의 환경의식·재활용의식과 재활용행동에 관한 연구 -미혼취업여성의 사장의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 pp.163-178.
 - 14) 석혜정, 김민숙 (2005). 녹색가게 이용자의 환경의식에 따른 녹색가게 이용 실태와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6), pp.171-182.
 - 15) 장경례, 박재옥 (1997). 사회 책임적 의류소비태도가 의류 처분 행동에 미치는 영향(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1(4), pp.795-805.
 - 16) 정유정, 박옥련 (2006). 대학생의 개성과 환경의식에 따른 의류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학회지, 15(1), pp.149-156.
 - 17) 김병미, 이재명 (1997). 착용하지 않는 의복의 처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pp.19-32.
 - 18) 유연실 (1996). 성인여성의 의복 폐기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pp.142-156.
 - 19) 유흥식 (2012). 패션산업에서의 윤리적 패션 -지속가능한 패션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2(2), pp.39-57.
 - 20) 장남경. 앞의 책, pp.31-47.
 - 21) 경향신문 (1987. 10. 19). 연도별 대학진학률, 경향신문, 검색일 2012. 6. 2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7101900329210008&editNo=3 &printCount=1&publishDate=1987-10-19&officeId=00032&pageNo=10&printNo=12941 &pub lishType=00020>
 - 22) 이투데이 (2013. 6. 20). 2012 한국의 사회지표: 대학진학률 여자가 남자보다 높아, 이투데이, 검색일 2013. 6. 2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no=750641>
 - 23) 김병미, 이재명. 앞의 책, pp.19-32.
 - 24) 권민숙, 송요순, 김태년, 김격애 (1998). 환경의식과 가정 쓰레기의 처리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2), pp.1-18.
 - 25) 김병미, 이재명. 앞의 책, pp.19-32.
 - 26) 신은주 (1989). 도시 가정의 의복관리 실태에 관한

-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강여선 (2013). 성인여성들의 의류제품 관리현황 및 환경오염 인식조사 -서울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3(3), pp.39-56.
 - 28) 유연실. 앞의 책, pp.142-156.
 - 29) 김병미, 이재명. 앞의 책, pp.19-32.
 - 30) 위의 책, pp.19-32.
 - 31) 유연실. 앞의 책, pp.142-156.
 - 32) 강여선 (2007). 신체 특성에 따른 타겟 연령별 치수 호칭 설정, 복식문화연구, 15(1), pp.137-151.

Research on the Recycling and Disposal of Unused Clothes by Women

Kang, Yeo Sun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uks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Focusing on diffusion of eco-friendly consumption, this study investigated recycling and disposal of unused clothes by women. 234 women were surveyed from November 2012 to January 2013. Women were found to have over 7 pieces of T-shirts, trousers, drawers, and socks, 5~6 pieces of skirts, sweaters, and jackets, and less than 4 pieces of outerwear. Women purchasing over 20% of their total clothes impulsively tended to have more clothes. Those in their twenties and students had more casual wear, but those in their thirties or over had more formal suits. The pieces worn were usually one to two less than those in possession, but it became three less in case there were more pieces in possession. This means the number of unused clothes increased. The disposal amount of more possessed items were 2 to 2.5 pieces, 1 was for less possessed items. Those in their forties and office workers disposed more. The unused old clothes were recycled a lot, but 20 to 30 percent of them still remained in the closet. Especially, students and a group less aware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clothing kept more unused clothes. The problem was that about 10% of women kept clothes because of not knowing the how to dispose them, while most of them kept them because of their value or because they were waiting for a trend revival. 69.1% of women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 old clothes in good condition but they had a lower intention to mend them to reuse. Moreover, practical experiences of reusing them were extremely low. It meant that the attitude did not activate to re-wear or reduce disposal. Women disposed of old clothes in the past 5 to 8 years because of their old fashioned design and changes in personal taste. They disposed easily of clothes that were purchased impulsively. Therefore eco-friendly consumption is important as much as environment consciousness, and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 and a social strategy to diffuse it.

Key words: unused clothes, recycling, reasons for disposal, women's clothes, amount of clothes